



정교회주보

제2542호
2025년 9월 1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십자가 현양 축일

조과 복음 : 요한 12,28-36
대영광송 다음에 십자가 현양 의식 19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2 응송 191
- 축일 찬양송 191
- 축일 입당송 191
- 축일 찬양송 191
- 축일 시기송 191
- '삼성송' 대신 '주의 십자가에' 191
- 사도경 : 고린토 전 1,18~24 ... 191
- 복음경 : 요한 19,6~11; 13-20;
25-28; 30 192
- 성모송 193
- 영성체성혈송 193
- '우리가 참빛' 대신 "축일 찬양송" 191

사진 설명

성 초

성초(사진)의 상징은 순수함과 희생이다. 별집에서 나 온 순수 밀랍은 영혼의 깨끗함과 조화, 하느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낸다. 또한 성초의 불꽃은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 영적 변화를 뜻한다.

테살로니키의 성 시메온 주교는 성초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성초는 밀랍으로 만드는데, 밀랍은 벌이 꽃에서 꿀을 따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매우 아름답고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초를 켜는 행위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성초는 그 속성이 부드러우므로 어떤 모양으로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드러워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회개를 통해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게 변모해야 합니다. 초는 타면서 자기 몸을 녹여가며 주위를 밝게 비춰 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오 5,14)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알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배려, 이웃을 향한 사랑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오래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 외국에서 오신 세 분의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수녀님들은 참된 수도자의 삶을 몸소 수행함으로써 많은 이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요.

당시 수도원에는 관리를 돕던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수녀님들은 이분들을 가족처럼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며 정성을 다해 손만두를 빚고 수녀님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빚은 만두를 넘치듯 담아 내왔지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저는 만두를 한입 베어 먹다가 그만 당황했습니다. 만두소에는 다진 돼지고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들이 육식을 금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노부부의 예기치 못한 실수였지요.

저는 선임 수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녀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은 “괜찮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러고는 환한 미소와 함께 맛있다고 세 분 모두 노부부의 정성이 담긴 만두를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그날 수녀님들은 육식을 금하는 계율보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두를 준비한 노부부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어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배려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마르코 2,27)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수녀님들이 계율을 내세워 만두를 거절했다면, 노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쁘게 준비한 식사 자리는 무거운 침묵과 민망함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넘어, 내 생각과 기준, 심지어는 나에게 중요한 규범마저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내 이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나 원칙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눈앞에 있는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며,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도 깊은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테미스토클리스 무르차노스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음



악은 사실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인간 욕망의 가면입니다. 누구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보임으로써 긴장을 풀며, 자기 가족이나 친구 또는 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 복수를 하고는 기분 좋다고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는 사람은 탐욕에 대한 갈증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곧, 세상이 자신의 발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력 덕분에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감탄과 존경마저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또한 자신의 권력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줄수록, 그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진정으로 악마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삶에는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며, 즐거운 것이 쓰디쓴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 삶에는 죽음이 뒤따르며,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친절과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절은 단지 이른바 형이상학적인(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참다운 문명(文明)입니다. 이것은 독선(獨善)에 맞서서 싸우고, 다른 사람을 고유하며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합니다. 친절은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회, 곧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은 업신여겨지고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세대에게 친절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제아무리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하며 진정으로 행하는 선행은 악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북돋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9월 17일(수)

성 소피아와 그녀의 딸들
삐스피, 엘비다, 아가씨 순교자
오전 9 : 조과 및 성찬예배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비는 10만 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알림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소식

현재 그리스를 방문 중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지난 3일(수) 예기나 섬의 성 벡타리오스 성당에서 거행된 성인의 이장 축일 기념 성찬예배를 다른 여러 대주교들과 공동 집전했습니다. 대주교는 앞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과 그리스의 여러 도시를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활동

10월 3일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서울 성당의 장년회와 청년회(신데즈모스)에서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청소와 제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참여하실 분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성당 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 날짜: 9월 19일(금)-21일(일: 이른 아침 서울로 출발)
- 숙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인천 성당 세례 성사

신재우 스피리돈-신 크리스티나 부부의 다섯째 아이 신시온 니콜라스가 지난 8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9월 4일에 응급실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 니콜라스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8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 집전으로 성찬예배와 함께 거행된 세례 성사를 통해 3명의 예비자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세례자: 박 세르게이, 한 베라, 렘 키라(유아)

여성의 생터



하느님 곁에서

대 아르세니오스가 조언했다.

“수도자여, 하느님을 찾아라. 하느님께서는 그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느님께서 그대 곁에 머무실 수 있도록 그분을 꼭 붙잡아야 한다.”